



[국가미래연구원 브라운백 세미나] 발표자료  
2019. 07. 26(금) 11:30~13:00

# 세계적 흐름으로 본 한국교육의 이슈와 전망

김 이 경 (중앙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 Index

---

I. 교육과 관련된 미래사회 변화

---

II. 세계의 교육변화 흐름

---

III. 한국의 학생

---

IV. 한국 교육 이슈들

---

V. 한국 교육의 미래??



세계적 흐름으로 본  
한국교육 이슈와 전망

UNIVERSITY



# 교육 관련된 미래사회 변화





# 미래, 2030 학교 교육의 모습은??

[표 1] School in 2030 - 지식공급원과 중요시하는 역량

## 지식은 누가 공급?

온라인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지식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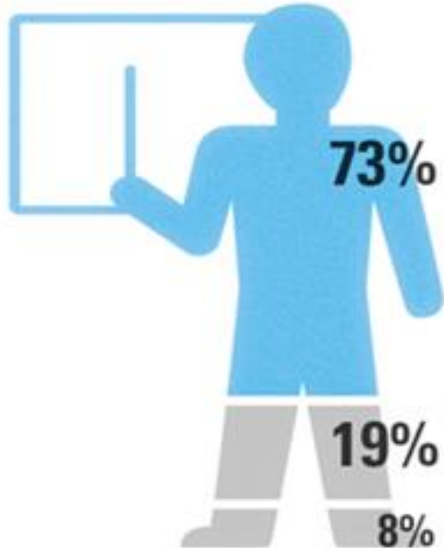
##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

사회적 역량, 의사결정 역량 등의 개인적

[표 3] School in 2030 -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과정의 유연성

##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자율적/능동적 학습경로를 교칭/멘토링하는 학습 안내자



##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개별화?

콘텐츠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점점 더 개별화될 것이다.





# ■ 2가지 시 중 인간이 쓴 시는?

“미국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에 캘리포니아의 로스바노스에서 27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0의 약진이 관찰됐다. 지진은 태평양 표준시로 오전 11시 36분에 0.6마일 깊이에서 발생했다.”

“A shallow magnitude 4.0 earthquake was reported Tuesday morning 27 miles from Los Banos, Calif., according to the U.S. Geological Survey.

The temblor o  
(2015. 5. 19. LA

2015.

이 기사는 LA타임스의 매일 쉬지 않고 캘리포니고 있다.

바야흐로 '로봇기자'들의 지 로봇, 즉 컴퓨터 기술은 보조적 역할을 맡아왔 분야에서 기자를 대체할 지 등장했다.

## Poem 2

ugh your life's morning

## '인공지능'이 쓴 소설 日문학상 1차 전형 통과

이동휘 기자

입력 : 2016.03.22 11:54

“그날은 구름이 드리운 우울한 날이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洋子)씨는 씻지도 않은 채 카우치에 앉아 시시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다.”

일본 호시 신이치(星新一) 문학상에 응모해 1차 전형을 통과한 소설의 서두 부분이다. 놀랍게도 작가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라고 한다.



# 급격한 환경변화 → 교육 위기의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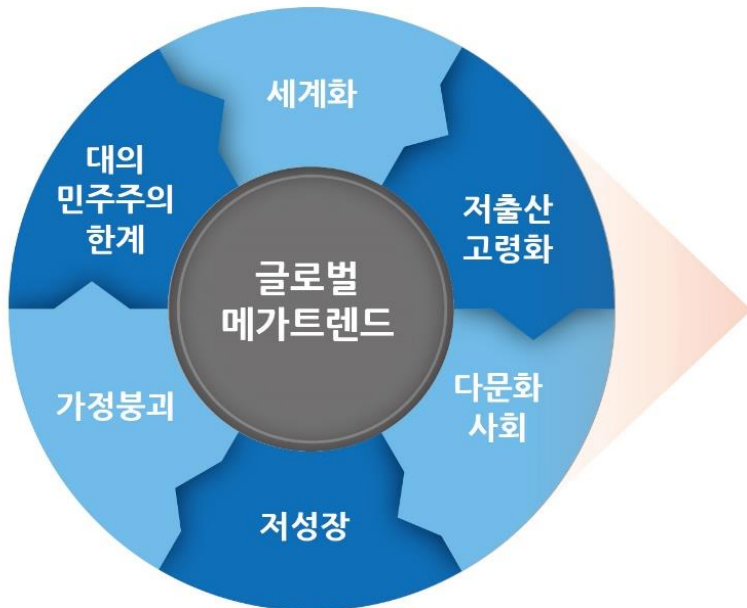
- ✓ 산업세계의 혁신적 재편
- ✓ 직업구조의 변화
- ✓ 글로벌 일자리 전면전

학교교육에 대한 위기의식 증대

인재상 재설정

학교교육 개혁

교육과정 개혁



- ✓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증대
- ✓ 인류의 공동 과제 변화
- ✓ 인류 전체의 위기의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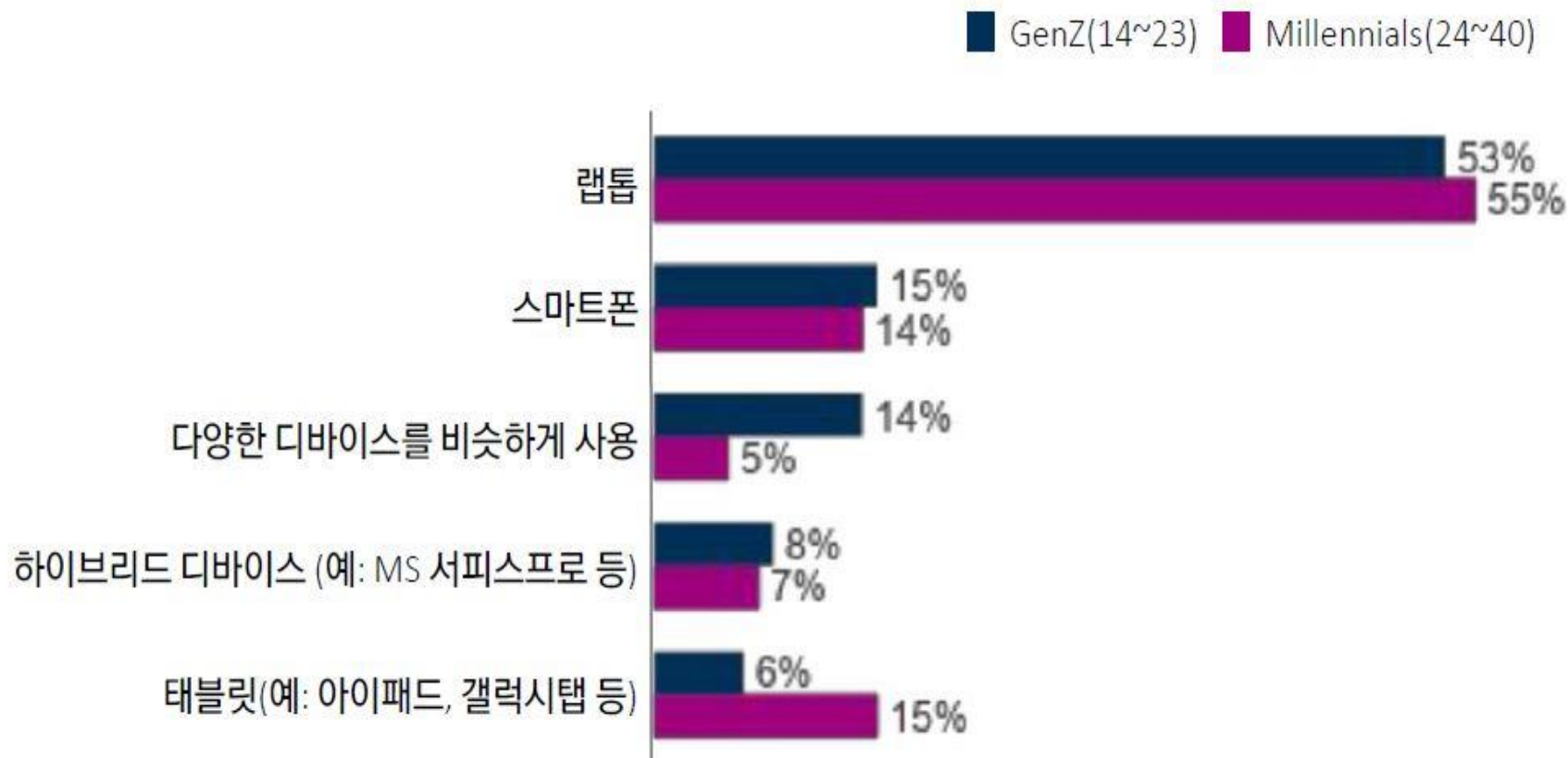
# 세계의 교육 변화 흐름





## ■ Z세대는 공부할 때 어떤 기기를 많이 사용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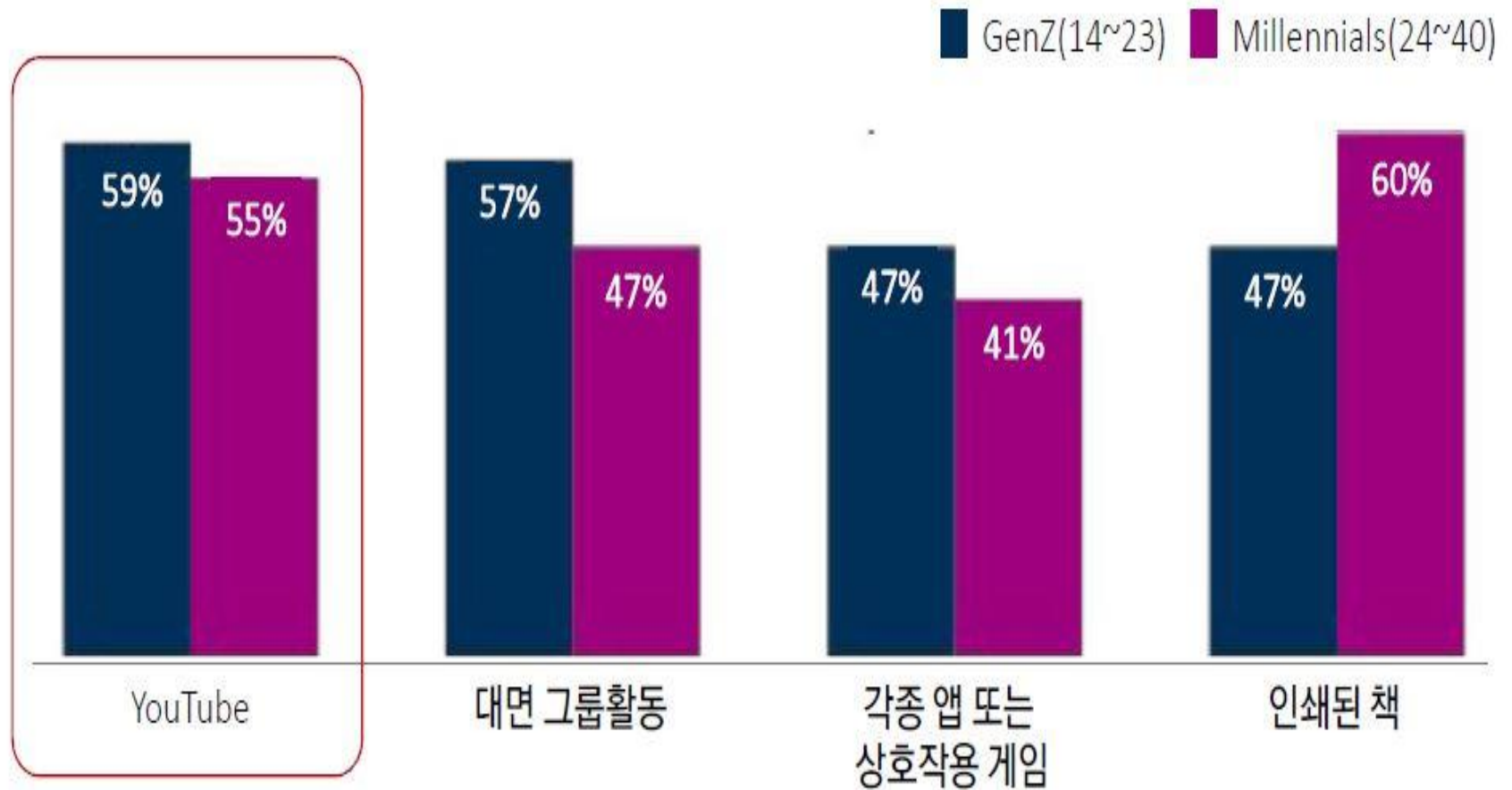
- Z세대: 어려서부터 멀티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학습, 일, 놀이,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
- Pearson(2018) 조사 결과: Beyond Millennials: The next generation of learners → 미국의 14~40세 2,587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 ■ Z세대는 어떤 학습 도구를 선호할까요?





## ■ Z세대의 학습 선호는?

- 테크놀로지 활용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에 가치를 두고 있음

■ GenZ(14~23) ■ Millennials(24~40)

교수자는 학습에 가장 중요함



동료들과 대면 활동을 선호



교수자 주도에 따라 학습하는 것을 선호



가능한 많은 온라인 강좌를 좋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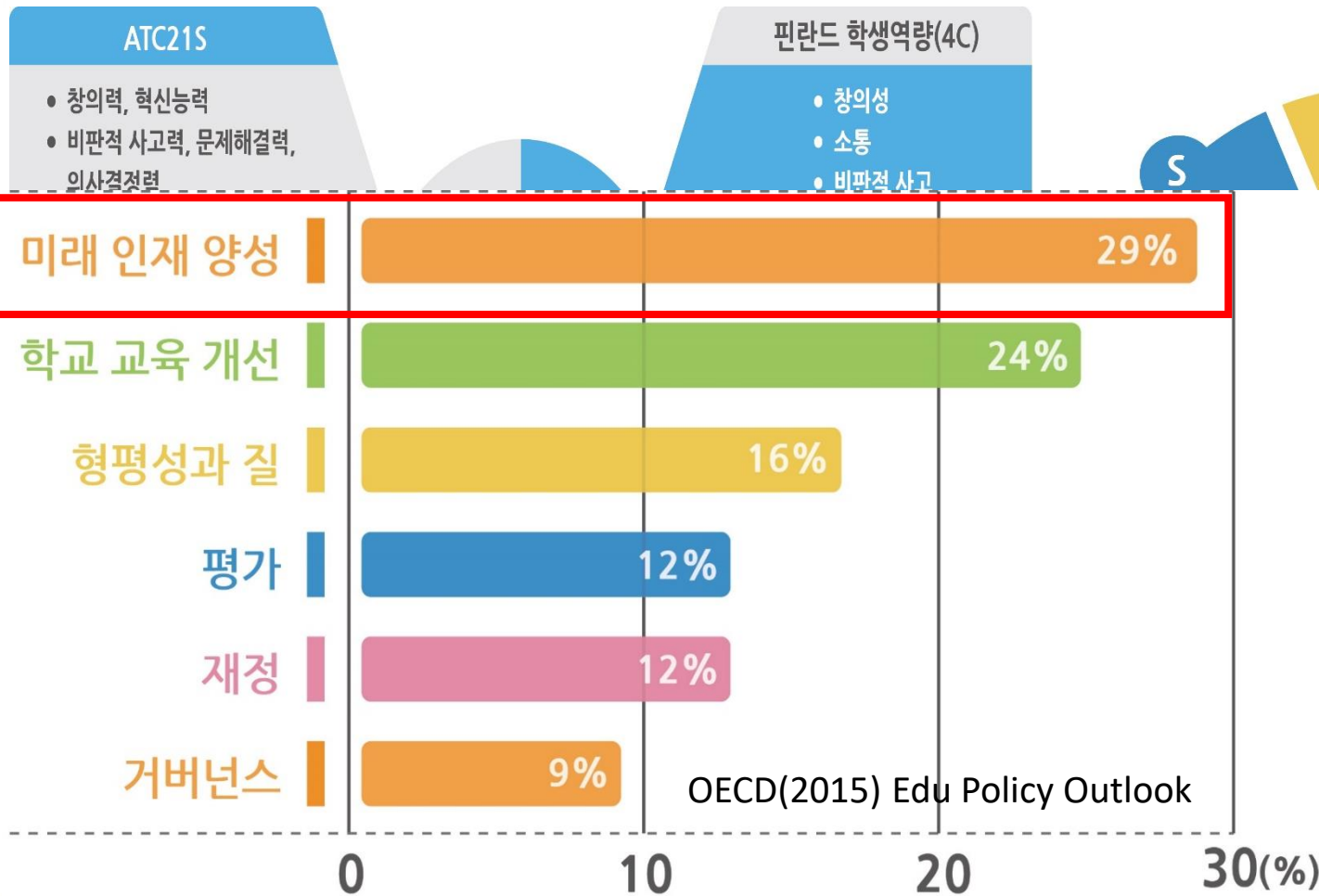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을 선호





# ■ 변화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인재상 재설정 + OECD 국가들의 교육개혁 아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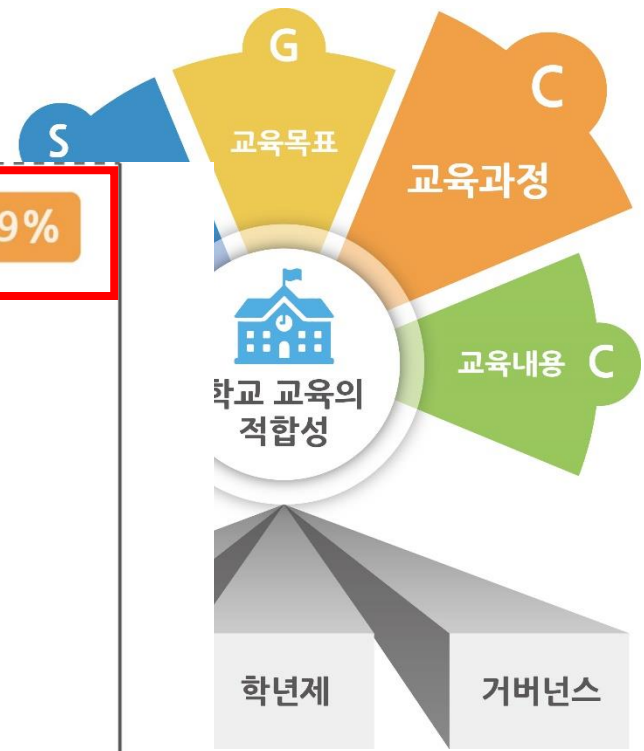


**ATC21S**

- 창의력, 혁신능력
-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핀란드 학생역량(4C)**

- 창의성
- 소통
- 비판적 사고





<http://www.school21.org.uk>

## 영국의 School 21

“우리 학교는 우리의 모든 자녀가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 교사 역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 찾도록 사고 촉진한다.
- 학생 학습: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때 가장 잘 배운다!
- 교육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보다 사고와 추론이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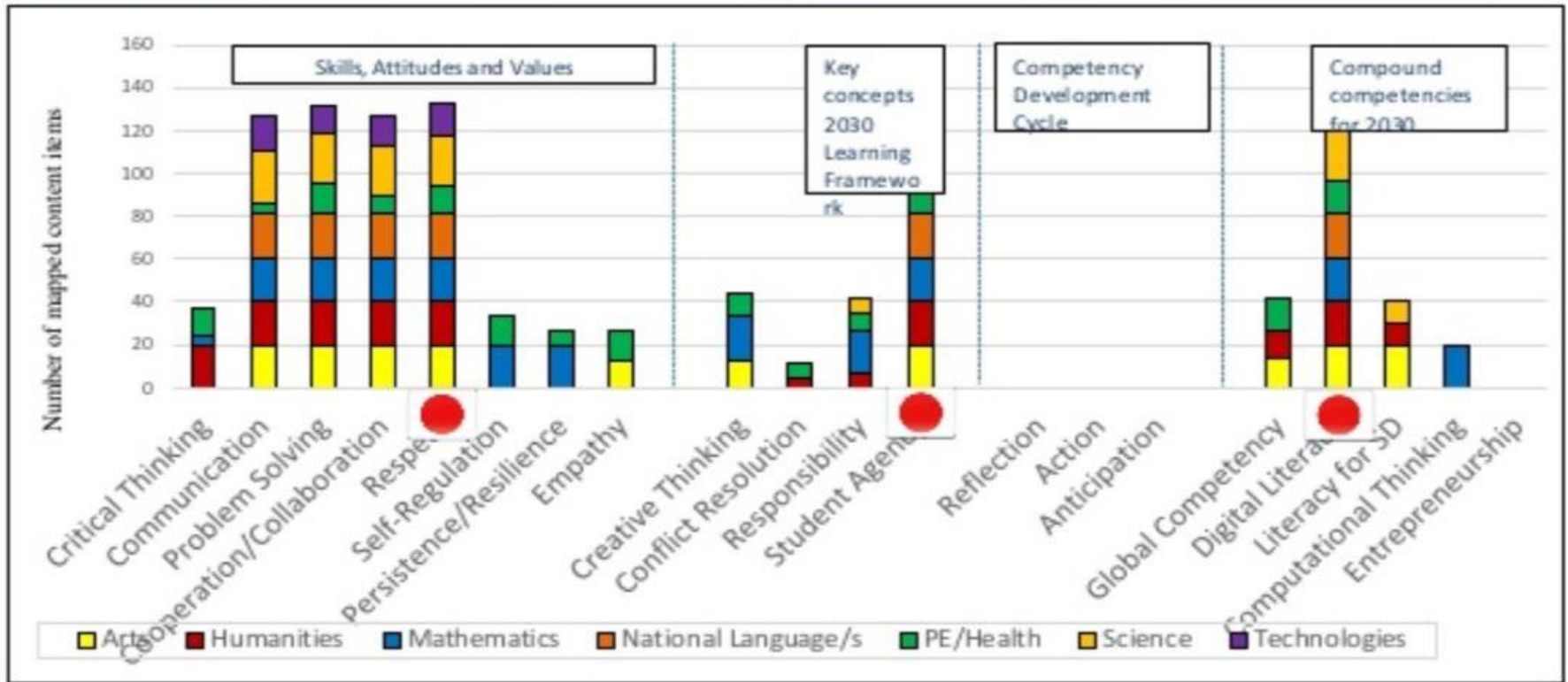




# 일본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개혁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전 과목에서 비판적 사고, 소통,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IT 역량 강화

**Current curricula and 2030 aspirations**  
Preliminary findings of curriculum content mapping (lower secondary;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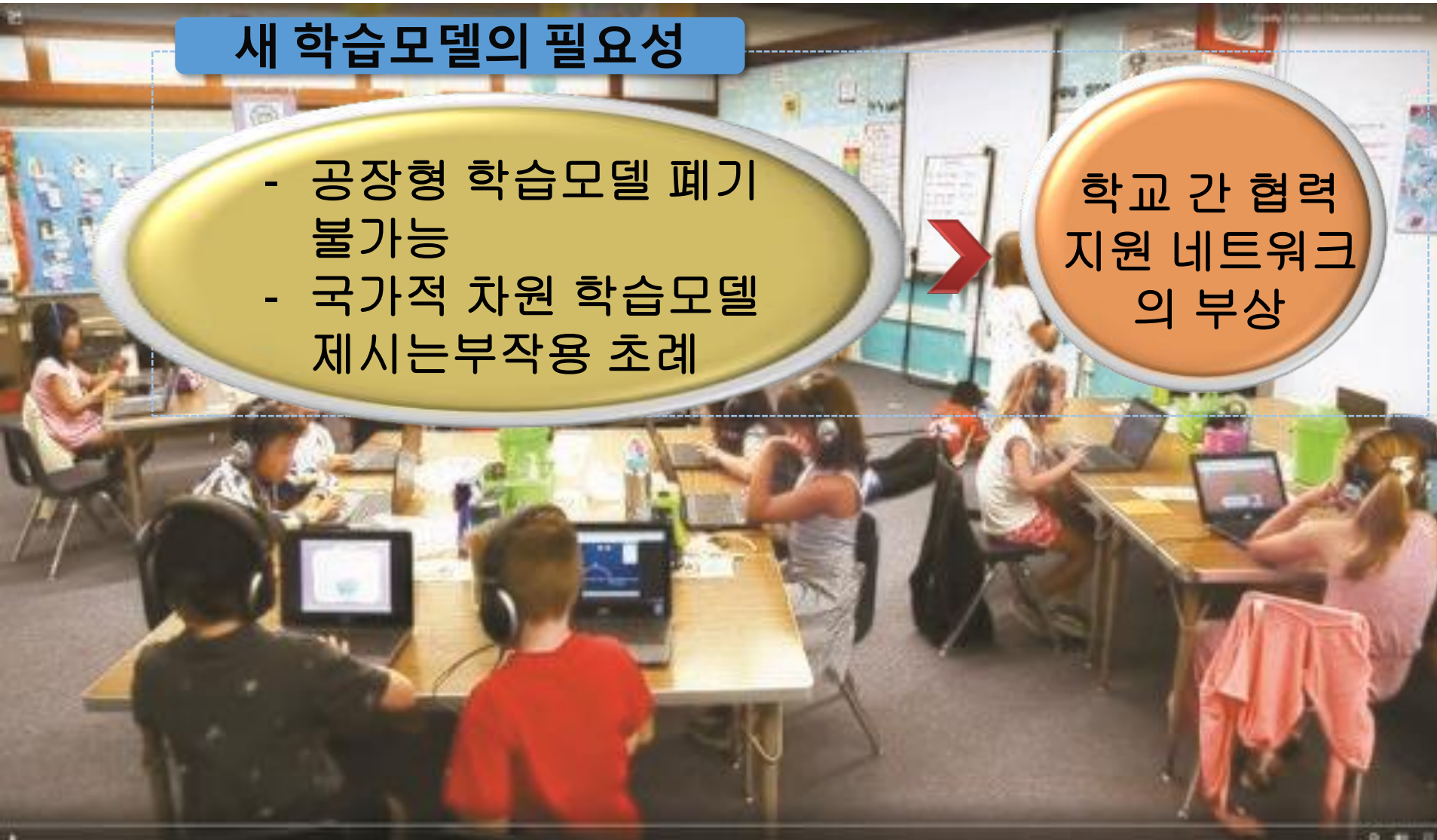


## ■ 미국의 학습 혁명 : EduTech + 학교협력 네트워크

### 새 학습모델의 필요성

- 공장형 학습모델 폐기 불가능
- 국가적 차원 학습모델 제시는부작용 초래

학교 간 협력  
지원 네트워크  
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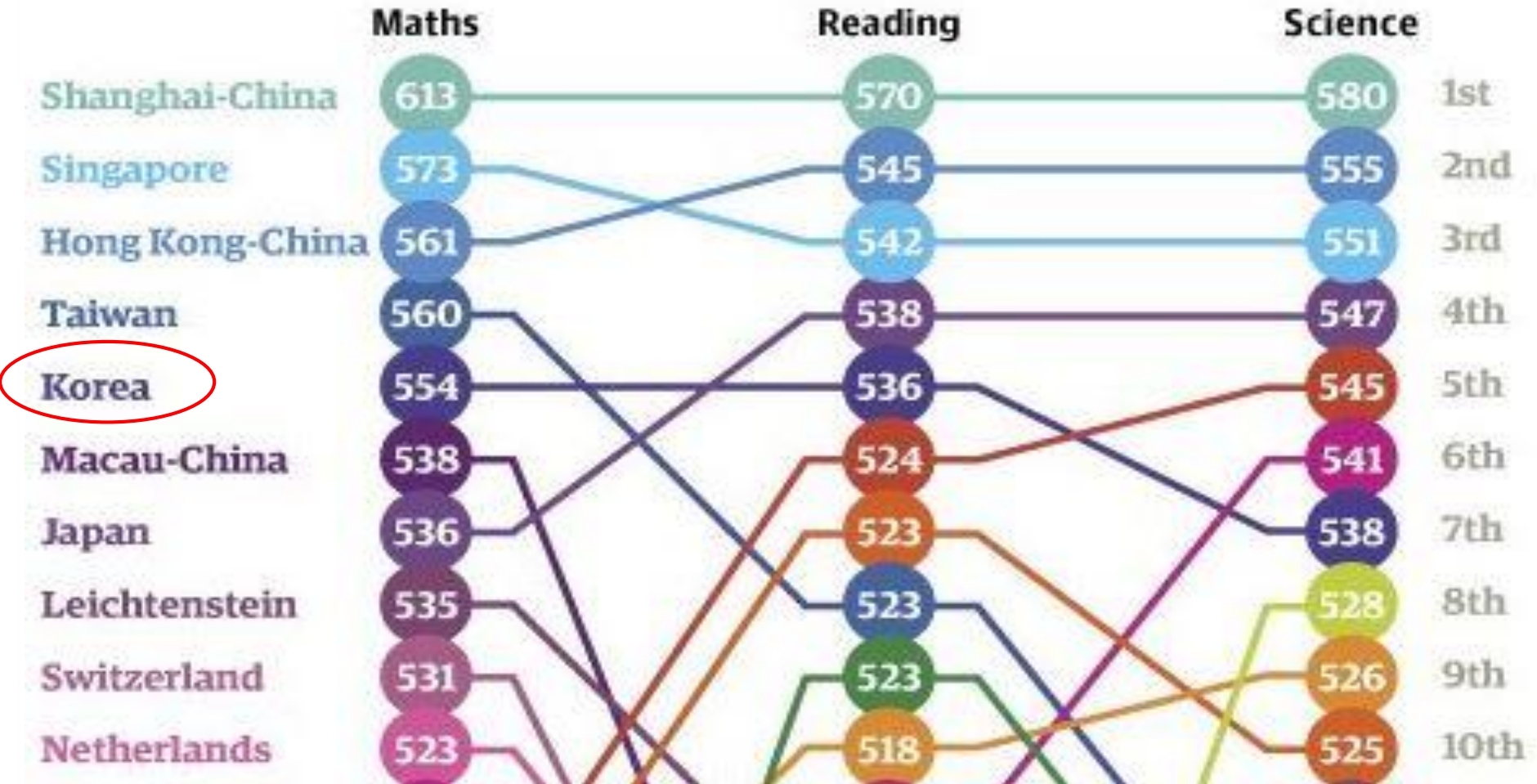


# 한국의 학생





■ 1997년 이래 계속해서 높은 학업성취도: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PISA) 결과







# 한국 학생들의 높은 교육적 성취 (OECD PISA 2015)





▪ 2015년도 챔피언은 Singapore...

# 2015 PISA AVERAGE SCORES

## Math

Singapore	564
Hong Kong	548
Macao	544
Taiwan	542
Japan	532
China*	531
Korea	529
Switzerland	528
Estonia	527
Canada	526
Netherlands	526
Denmark	521
Finland	521
Slovenia	519
Belgium	519
Germany	517
Poland	516
Ireland	516
Norway	513
Austria	509
New Zealand	509
Viet Nam	509
Russia	503
Sweden	503
Australia	503
France	503
United Kingdom	503
Czech Republic	503
Portugal	503
OECD Average	490

## Reading

Singapore	535
Hong Kong	527
Canada	527
Finland	526
Ireland	521
Estonia	519
Korea	517
Japan	516
Norway	513
Denmark	509
Netherlands	509
Sweden	500
Denmark	500
France	499
Belgium	499
Portugal	498
United Kingdom	498
Taiwan	497
United States	497
Spain	496
Russia	495
China*	494
OECD Average	493
Switzerland	492
Latvia	488

## Science

Singapore	556
Japan	538
Estonia	534
Chinese Taipei	532
Finland	531
Macao	529
Canada	528
Viet Nam	525
Hong Kong	523
China*	518
Korea	516
New Zealand	513
Slovenia	513
Australia	510
United Kingdom	509
Germany	509
Netherlands	509
Switzerland	506
Ireland	503
Belgium	502
Denmark	502
Poland	501
Portugal	501
Norway	498
United States	496
Austria	495
France	495
Sweden	493
OECD Average	493
Czech Republic	493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 ■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력 약화, 비만 증가,  
시력 약화 등 **"부족"**

신체적  
능력

**"세계 최고 수준"**  
PISA 결과,  
OECD국가 중  
읽기/수학 1~2위,  
과학 2~4위



지적  
능력

공감 소통 능력  
배려 협동하는 능력  
**"부족"**  
OECD 22개국 중 21위



사회적  
능력

학생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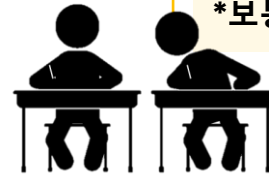
정서적  
능력

관심, 흥미, 자신감,  
긍정, 자율, 탐구, 도전,  
지적 호기심, 개척정신, 감  
사, 애국심 등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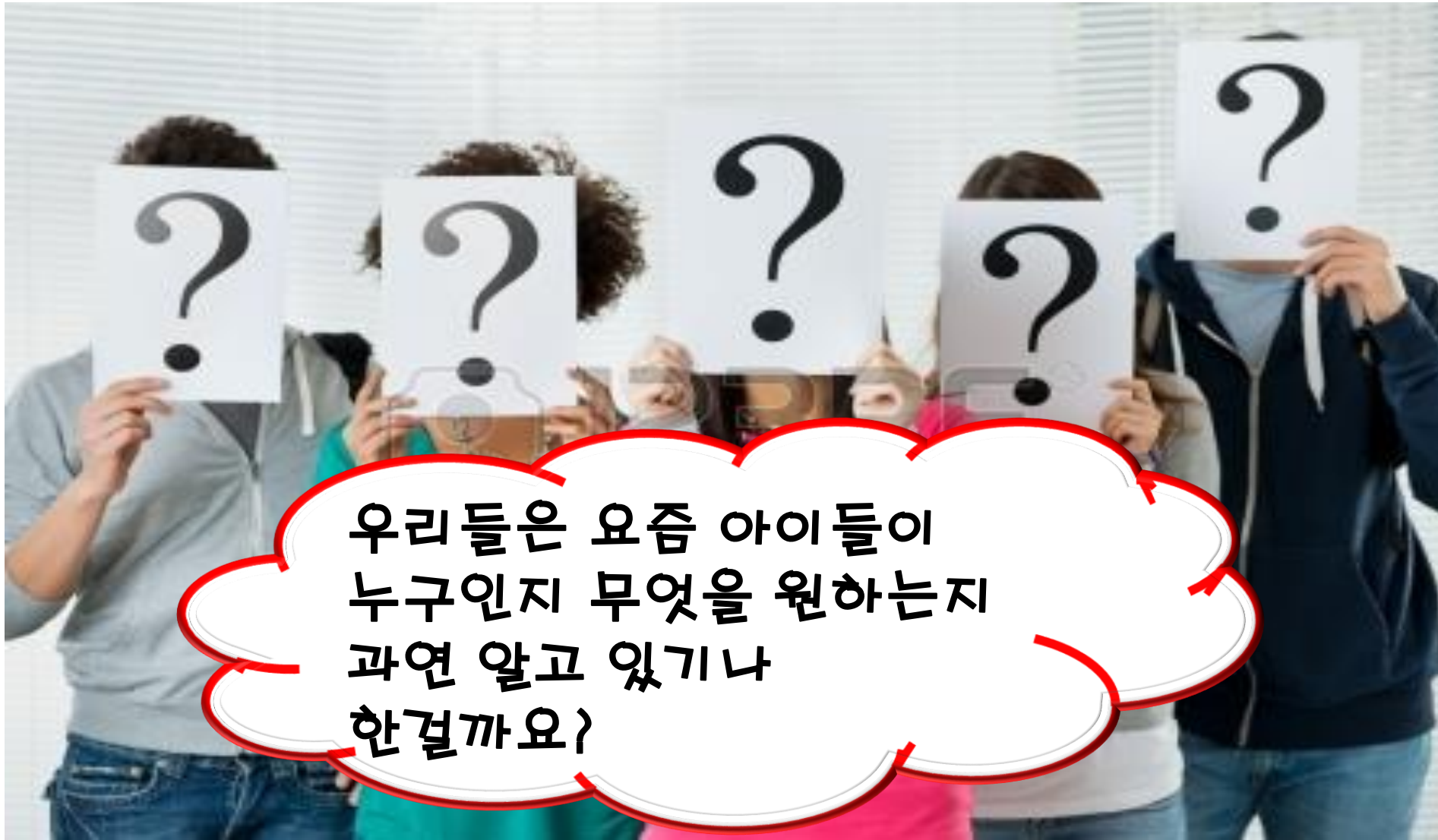
도덕적  
능력

KEDI 2015 교육여론조사,  
초·중·고등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낮음"**  
(51.5%)  
\*매우 높다+높다(7.9%)  
\*보통(40.7%)





# 교육이 왜 변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요즘 아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알고 있거나  
한걸까요?

U N I V © Getty Images

Students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ad no idea one of their TAs, Jill Watson, was a robot



# IV 한국 교육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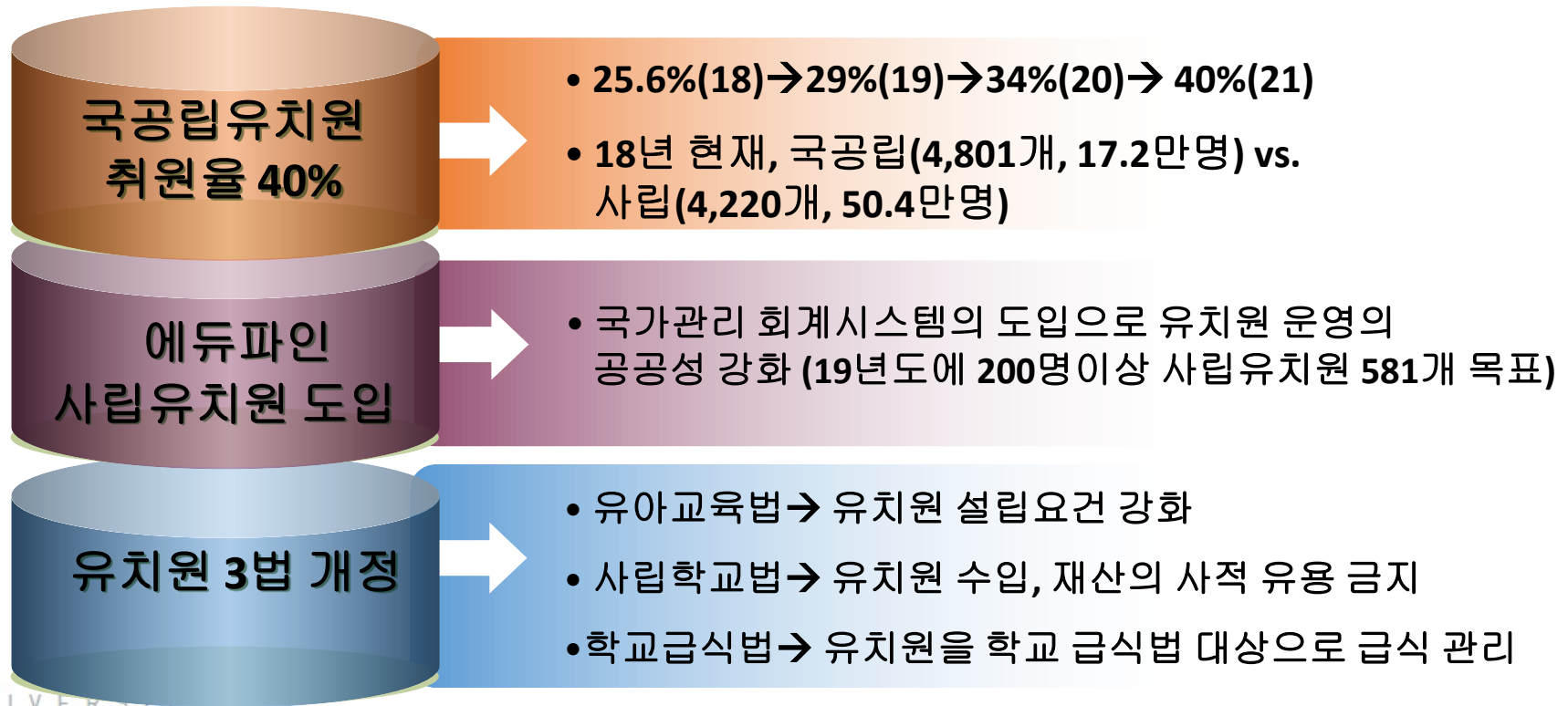
# ■ 최근 한국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가?





## ■ 늦어도 너무 늦은 유아 공교육

Head Start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 공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극심한 갈등의 연속(교육 vs. 보육, 유치원 vs. 어린이집, 교육부 vs. 보건복지부...)





## ■ 고등학교 체제 개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화 해소, 입시 경쟁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

목적

고교 300 프로젝트/ 고교다양화 (MB 공약) → 일반고 황폐화 → 자사고 폐지(문재인대통령 공약)

경과

42개 자사고 5년마다 교육감이 재지정 → 올해 24개 고 평가 → 전주 상산고(79.61/80) →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 진보와 보수의 대립

재지정 평가

교육의 형평성 vs. 수월성, 폐지 후 고교교육 정상화 가능? 포퓰리즘 논란 → 고교유형에 대한 비전, 큰 그림 부재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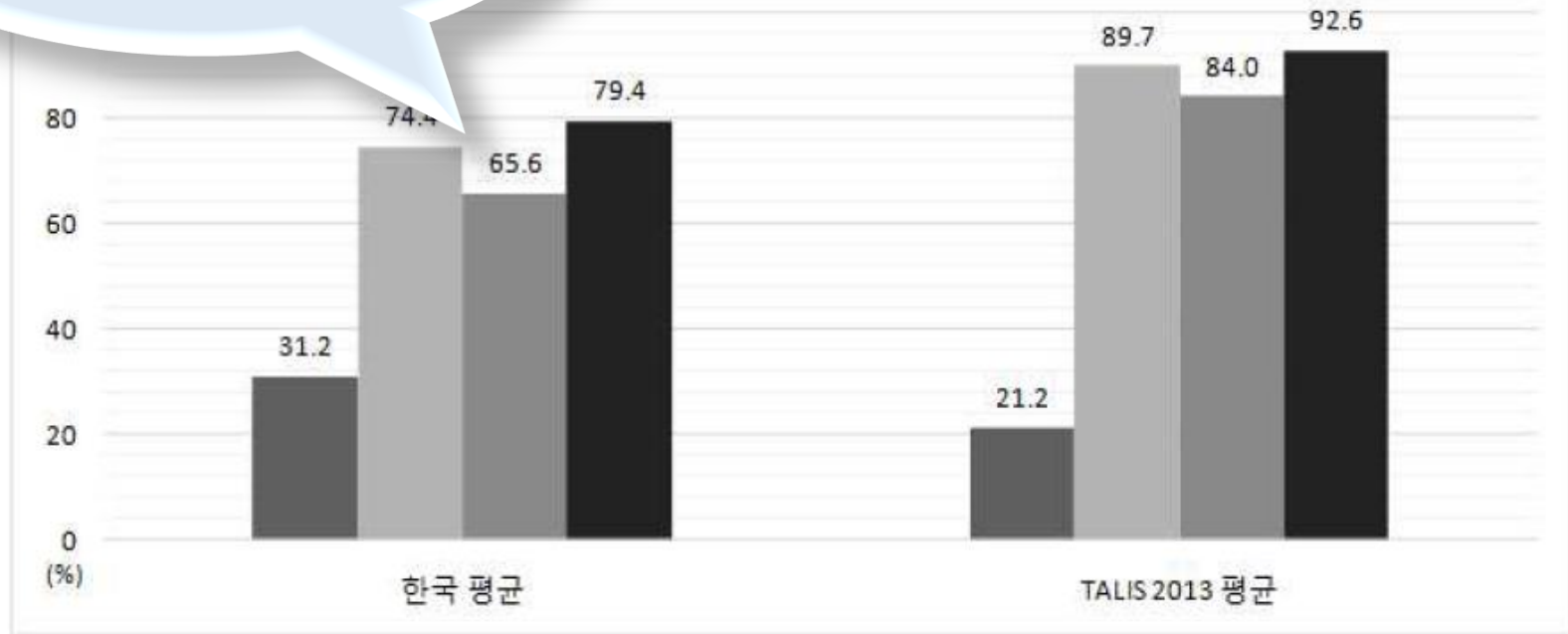




## ■ 교원들의 낮은 직무 만족도

전근 **더** 가고 싶고  
 학교서 일하는 것 **덜** 즐겁고  
 학교 좋은 곳이라고 **덜** 추천  
 학교 업무 결과에 **덜** 만족

...하면 나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싶다  
 ...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  
 ...교가 근무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에서의 나의 업무 결과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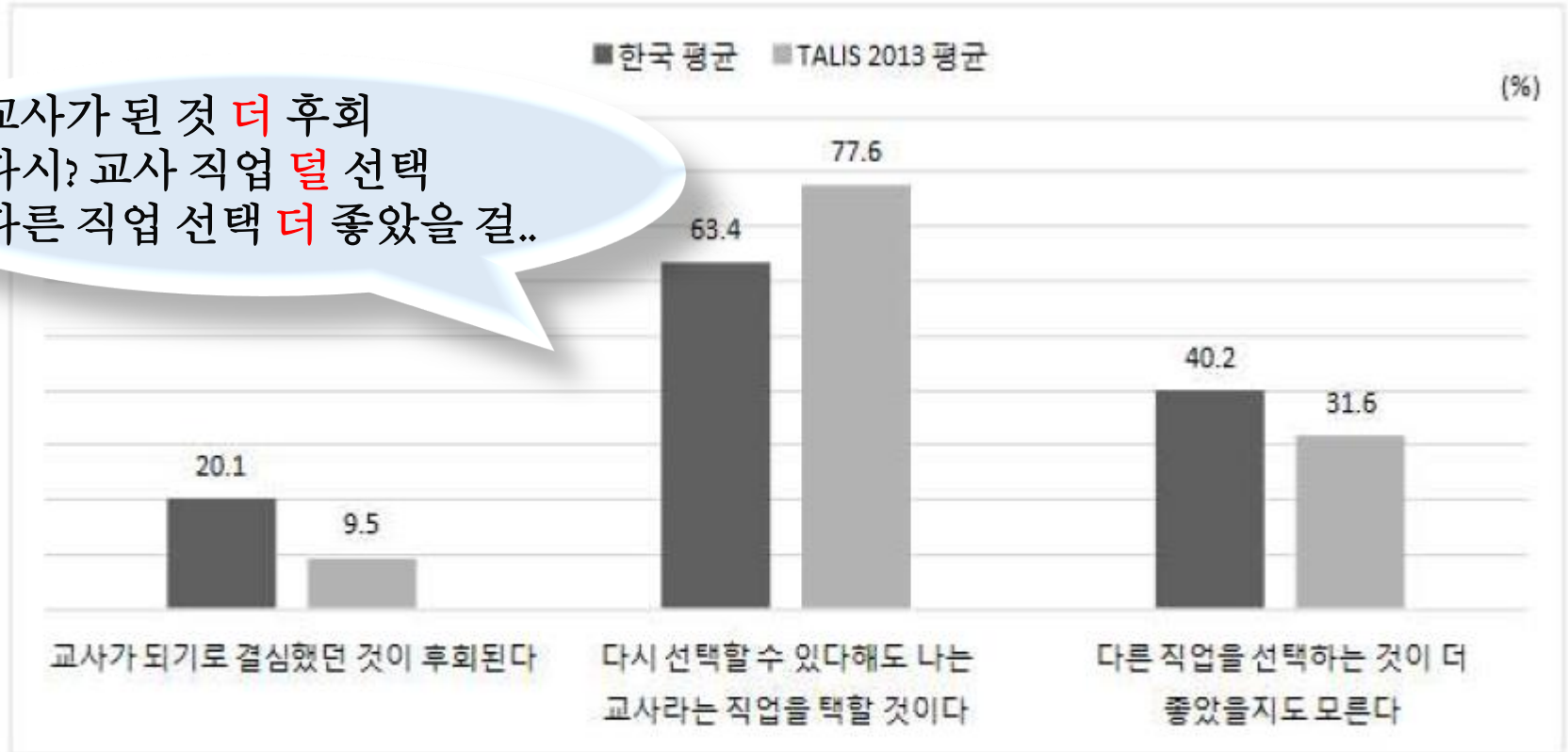
[그림 Ⅲ-48]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직무만족도

( \* 출처: OECD(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pp. 407-408에서 재구성함.



## ■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교사가 된 것 **더** 후회  
다시? 교사 직업 **덜** 선택  
다른 직업 선택 **더** 좋았을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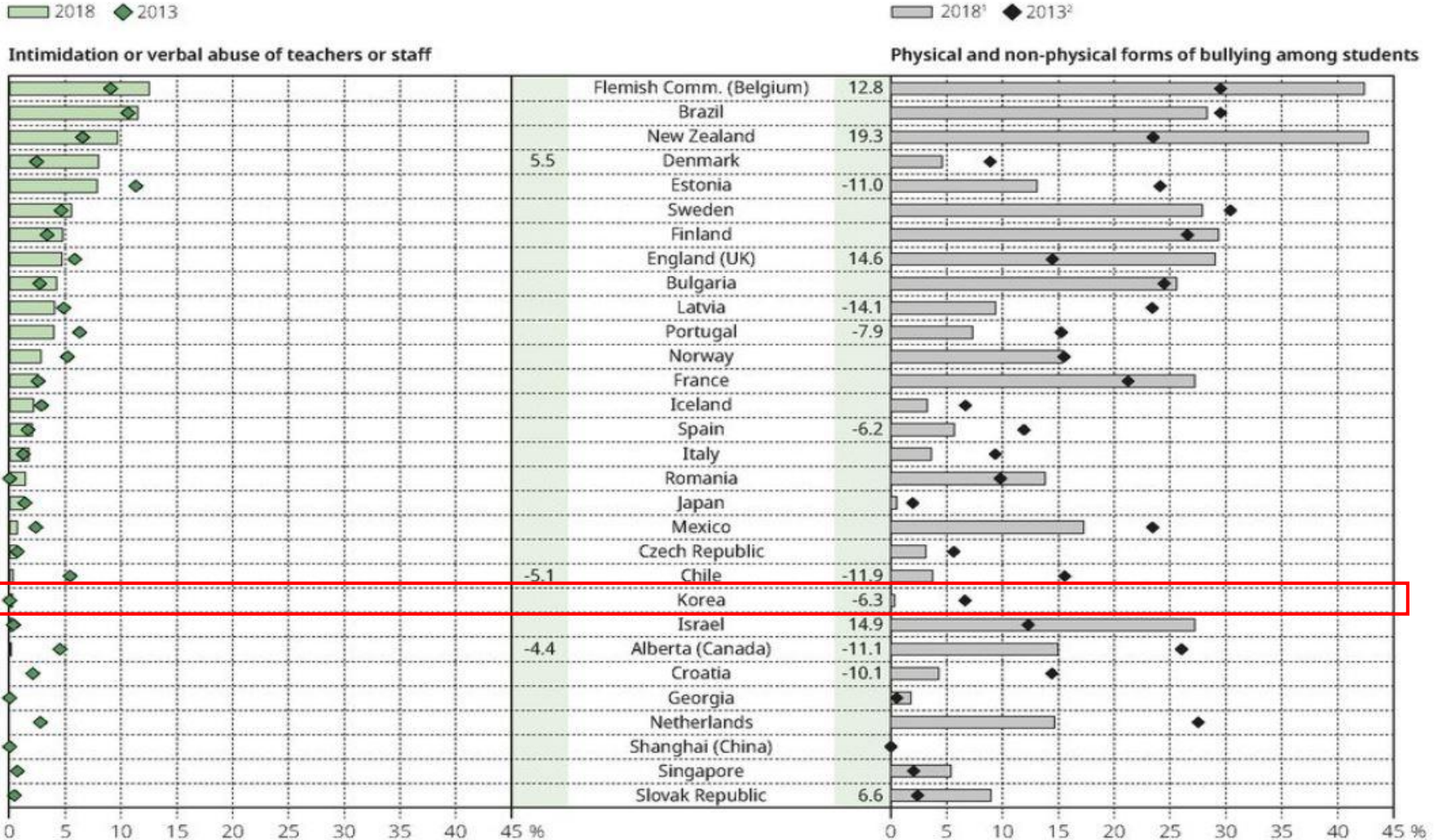
[그림 Ⅲ-47]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유사 문항 평균 비교

\* 출처: OECD(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pp. 407-408에서 재구성함.



# 2013 ~ 2018 학교 폭력 추이

Percentage of lower secondary principals reporting that the following incidents occurred at least weekly in their school (OECD TALIS, 2018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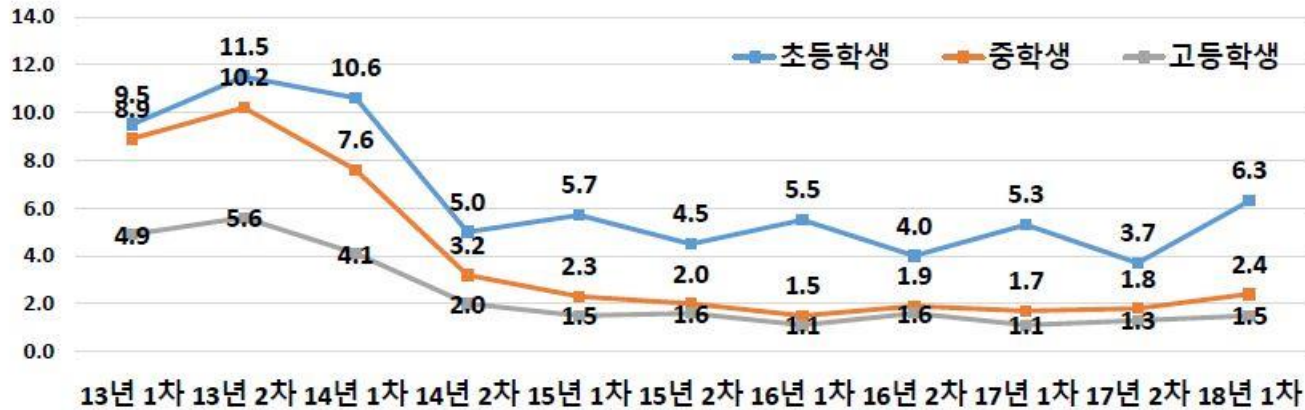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 현상, 한국의 학교 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적은 것은 그나마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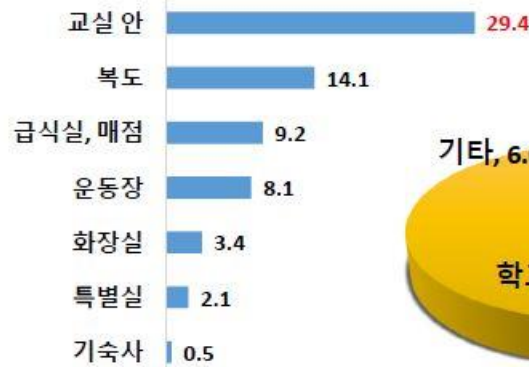


# ■ 학교폭력 피해의 저연령화, 사이버공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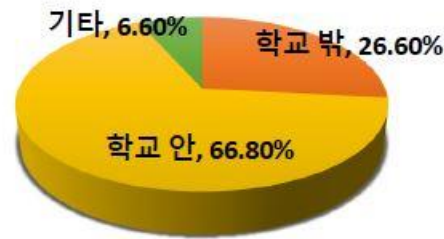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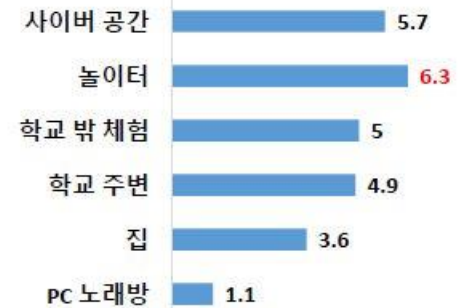
### 학교 안



### 학교폭력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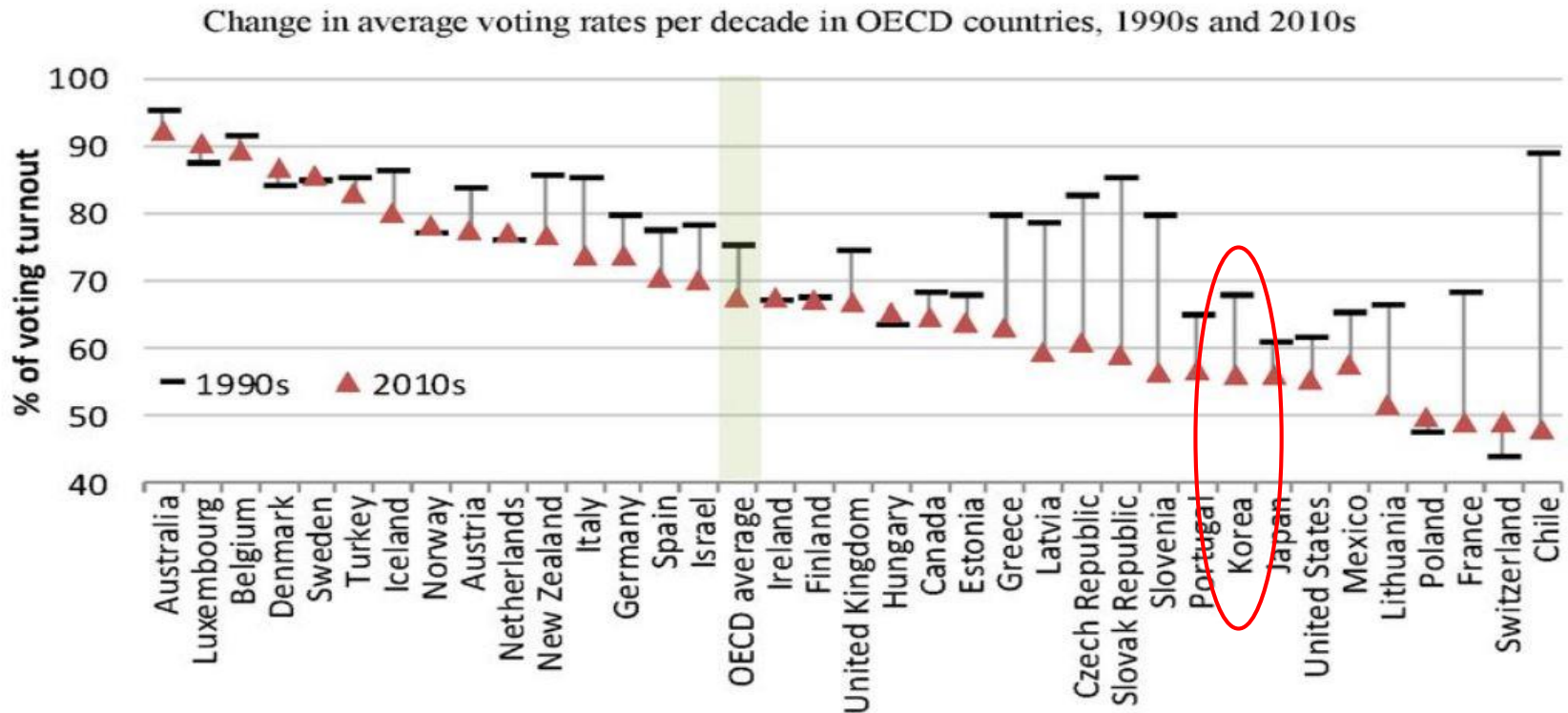
### 학교 밖





# 민주시민 의식 약화: 투표참여율(1990, 2010년대)

1990년대에 비해 더욱 감소한 투표율 →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Note: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by the average voting rates for the period 2010-18, covering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from 2010 to the latest year with data available. Voting in Australia, Belgium and Luxembourg is compulsory. Voting was compulsory in Chile until 2012.

Source: International IDEA (2018), *International Voter Turnout Database*, [www.idea.int](http://www.idea.int).



# 고등교육 형평성: 법학전문대학원 SKY 캐슬

2019,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스  
카이 출신

21개 로스쿨 신  
입생 중 SKY 출  
신 48.6%

지방 로스쿨은  
SKY 출신 10%대

교육기회는 양적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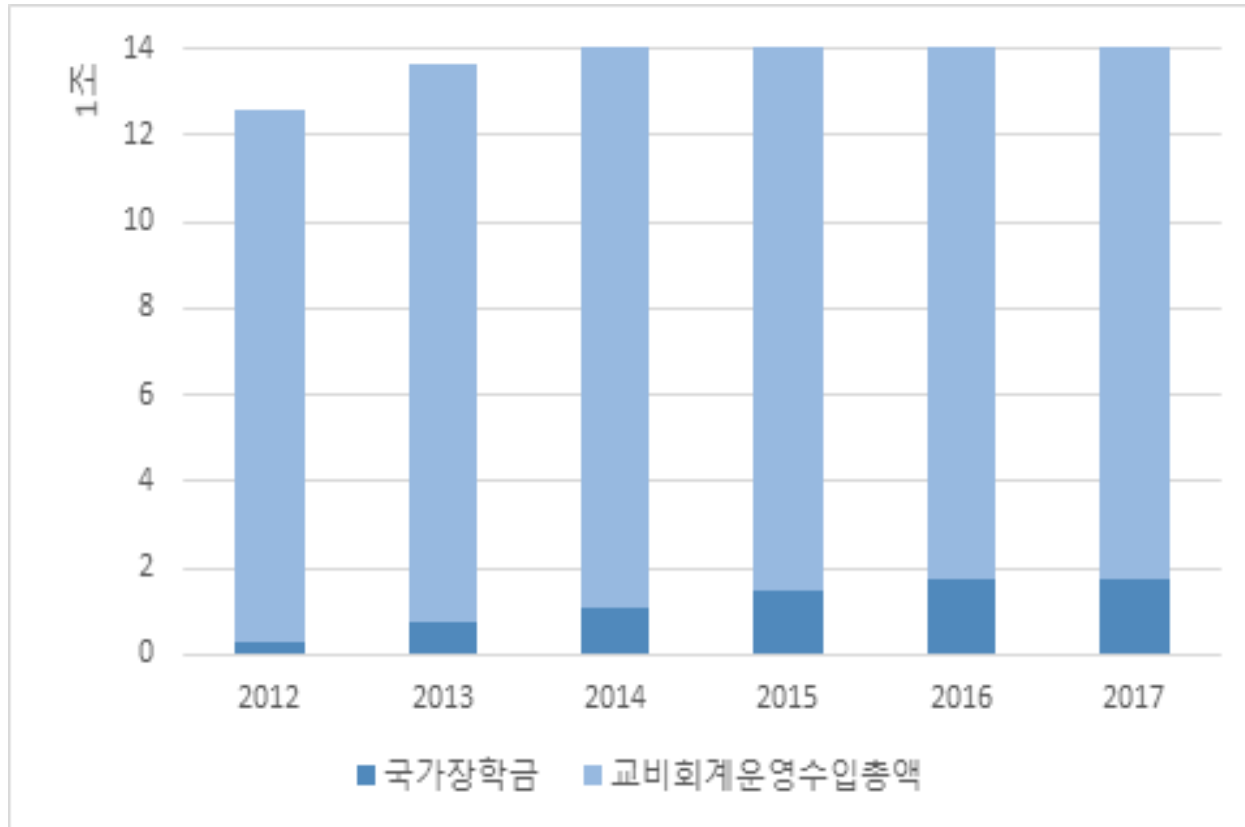
학벌주의 여전  
“개천에서 용나기” 점점 더 어려  
워진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 이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다.



# 대학교육의 재정적 압박의 심화

[연도별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운영수입 대비 국가장학금 지급액 비율]



- 10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 + 국가장학금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 4년제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수입( 12조2천억→13조 9천억) 대비 국가 장학금 (2천억원(2%)→ 1조 7천억원(13%)) 비율의 지속적 증가



# 한국 교육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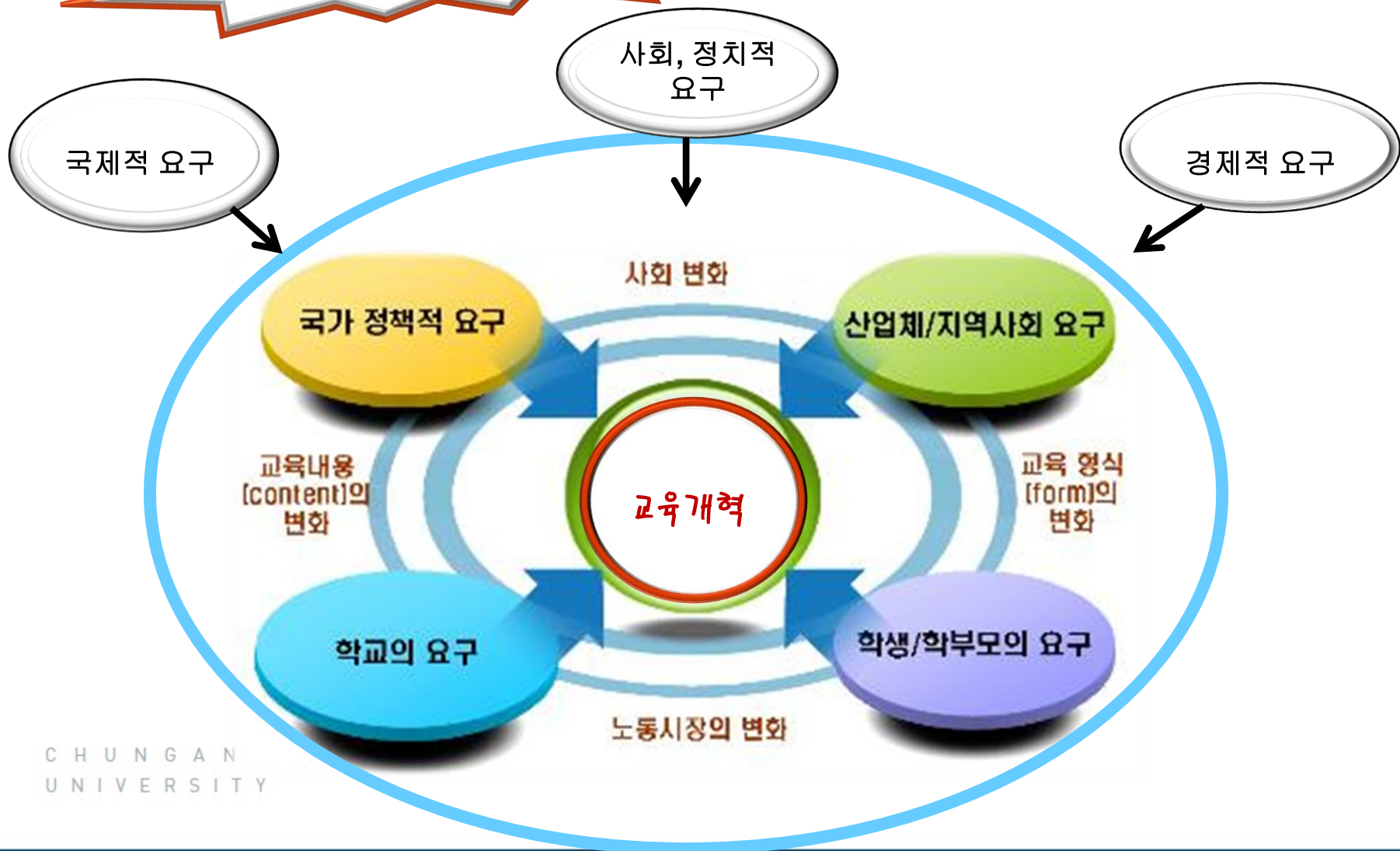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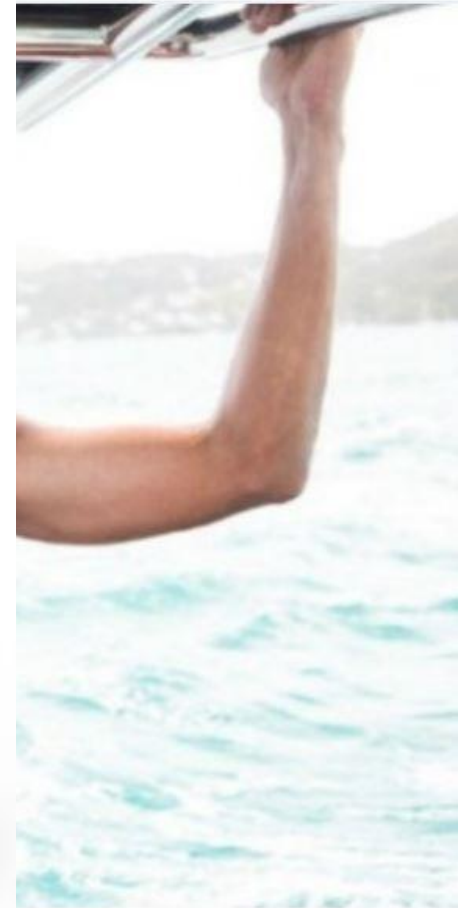
■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Global Mega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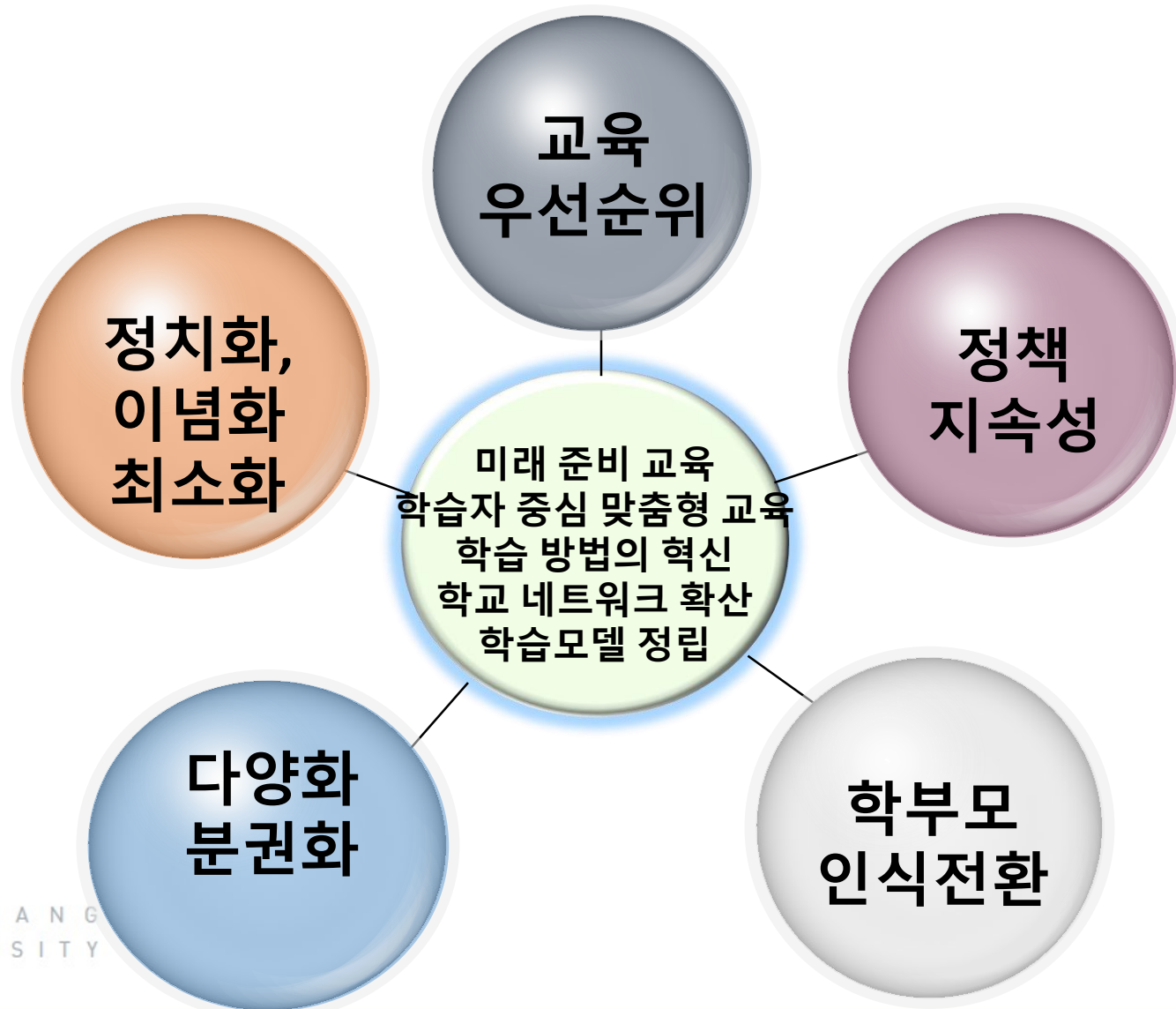


■ 오바마 → 더 이상 한국 교육 전도사가 아닙니다!





## ■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





감사합니다